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0〉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⑤

⑥不學詩 無以言 (불학시 무이언)

言善則千里之外 應之
언선즉천리지외 응지

言不善則千里之外 違之
언불선즉천리지외 위지

時陳褒貶 語順聲律
시진포폄 어순성률

國風敎厚 雅頌溫柔 才華氣淸 詞富彬蔚
극풍돈후 아송온유 재화기청 사부빈울

⑥시를 배우지 아니하면 말할 줄 모른다.

말이 선하면 천리 밖에서도 응하고
말이 선하지 않으면 천리 밖에서도 거스른다.

시경에는 칭찬하는 말과 깍아 내리는 말이 펼쳐져 있고 말은 소리와 운율에 따르니, 나라의 풍기(또는 가요풍)는 돈후하고 아송(궁중음악·종묘예악)은 온화유순하매 재주가 빛나며 기풍은 청아하고 말은 넉넉하고 빛나며 씩씩하다.

久習則語論 自秀 纔誦 乃剖吐而不俗
구습즉어론 자수 재송 내함토이부속

伎癢四海習擊節 此對擲天釋道安
피청사해습착치 차대미천석도안

陳留高才 時忽嘲曰大晋 龍興 天下爲家
진류완첨 시홀조왈대진 용흥 천하위가

沙門 何不全髮皆去袈裟 釋梵服被綾紗
사문 하부전발부거가사 석범복피릉사

孝龍 對曰抱一以遣遙 唯寂以致誠
효룡 대왈포일이소요 유적이치성

頭髮毀容 改服變形 彼謂我辱 我奠彼榮
전발훼용 개복변형 피위아욕 아기피영

(그와같이) 오래 익힌 즉 말과 논리가 절로 뛰어나고 겨우 외울지라도 말함이 속되지 않는다.

저를 일러 사해의 습착치라 하니 이에 대꾸하여 미천의 석도안이라 하였다.

(중국 진나라의 습착치라는 현인이 도안스님을 보고 내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뿐인 습착치라 하오 말하니 도안스님이 이를 맞받아서 내가 하늘 아래 도안이오 하였다) 진류사람 완첨이 때에 문득 비웃어 가로되 대진(중국 나라이름)이 용처럼 일어나 천하로 집을 삼거늘 스님은 머리기르고 몸을 온전히 하여 가사를 벗고 비단 옷을 입지 않느냐 하매 (하늘 아래 도안이라면 왜 진나라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뜻)

효룡스님이 대꾸하기를 포일(하나를 품다, 하나는 道一불성·진여)로써 노닐고 오직 고요함으로써 정성을 다하는지라 머리깍고 모양새 바꾸고 의복과 형상을 고친 것을 저들은 일컬어 욕되게 한 것이라 하나 나는 저들같은 영화를 버렸으니

故 無心於貴而愈貴 無心於足而愈足
고 무심어귀이유귀 무심어족이유족

말을 선하게 하면 천리 밖에서도 응해 뜻이 지나치고 실답지 못한 말 삼가야

此乃蘭蘭芳 言吐風采
차내기온란방 언토풍채

雖不近乎俚俗 而可接於淸才
수불근호롱속 이가접어청재

佛法 旣委王臣 弘道 須習文翰
불법 기위왕신 홍도 수습문한

友通 投書北關 道安 放逸東山
지순 투서북괼 도안 방일동산

自非高才 豈感君主
자비고재 기감군주

宜省狂簡之言 徒虛語耳
의성광간지언 도허어이

그런고로 귀한 데 무심하되 더욱 귀하고 족한에 무심하되 더욱 족하노라 하니 이것은 기개가 난의 꽃핌과 같고 말이 풍채를 토함이다.

비록 무지한 세속에 가깝지 않으나 가히 청신한 재사를 접인할만 하다.

부처님께서 이미 불법을 군신에 위촉하셨으니 법을 넓힐진대는 모름지기 글월을 익힐지니라

지순(중국 진나라사람)은 (강론을 맡기자) 대궐에 글을 올리고 사양했으며 도안은 (임금이 불러도) 동산에 노닐며 나오지 않나니 뛰어난 재목이 아니드면 어찌 군주를 감동케 하리오

마땅히 광간의 말(뜻이 지나치고 실답지 못한 말)이 헛되고 헛된 말임을 살필지어다.

龍 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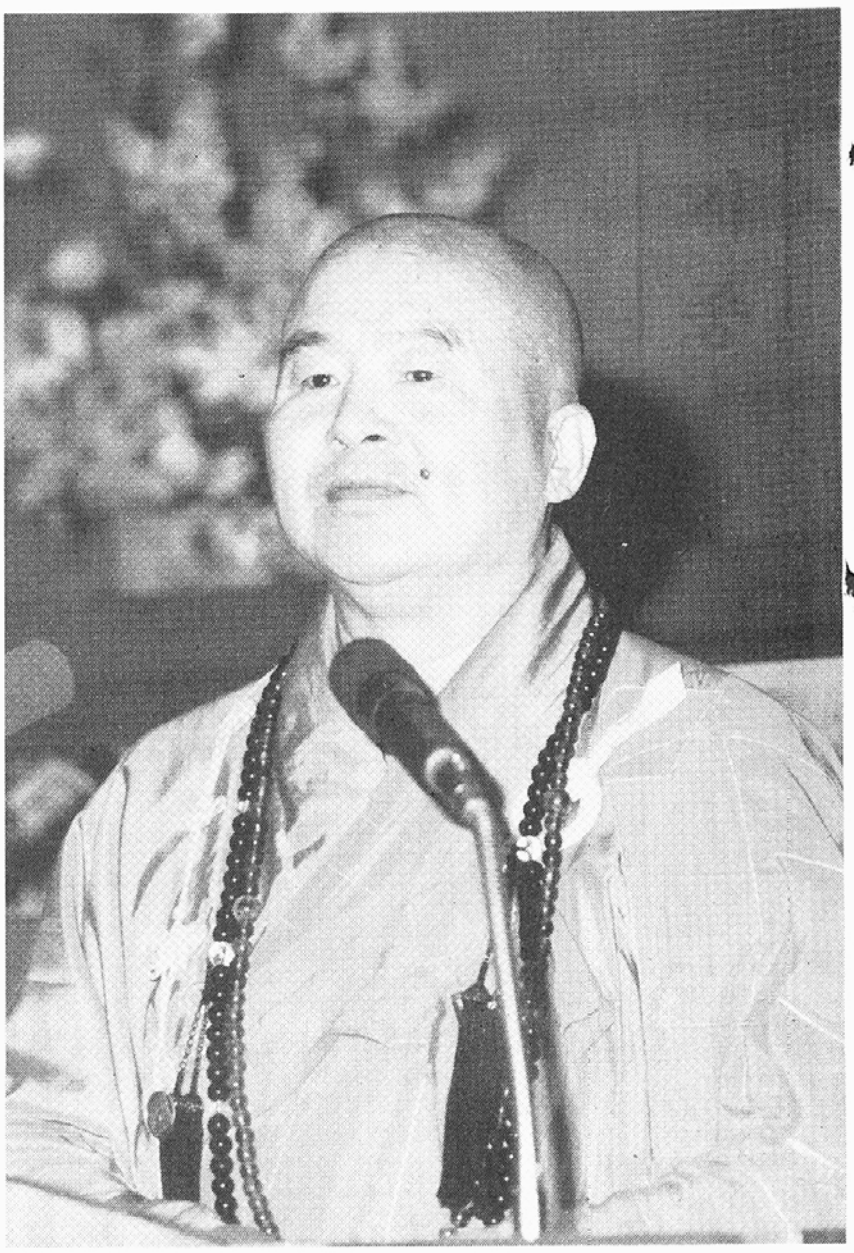
여름 특집 해외 고승 지상법석

"만물을 차별하는 생각이

성운스님

〈대만 불광산〉

스님은 1922년 중국 본토 강소성에서 태어났다.
12세에 대각사에서 지개법사를 은사로 출가, 49년에 대만으로 건너갔다. 부처님법을 널리펴고자 〈인생〉이란 월간지 주필을 맡았고 학생회, 합창단, 유치원등 힘있는 대로 포교사업에 전력투구했다. 불광산를 개산하여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교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창고와 같아 수많은 고뇌를 저장하고 있는데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고 하소연을 할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하기가 몹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경우 성격이 활달한 사람은 직접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이 애창하는 '마음속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지만 말하기가 무척 어려워'라는 노래 가사처럼 고백을 못하고 가슴 속에 묻어두고 맙니다.

마음속 비밀이 누에고치 처럼 자신을 갉아 불행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 말하기 어렵지만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의심하거나 질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말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천가지 만가지나 되는 마음속의 비밀과 고민들을 어떻게 털어내고 교묘하게 표현하여 병에 이르지 않고 재난을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며, 지혜입니다.

과거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갖은 고생을 해가며 자식들을 키웠으나 자식들이 불초하여 늙으신 부친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상심한 노인은 남에게 창피스러워 말도 못한채 어린 손자를 데리고 길거리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어느날 노인이 철모르는 손자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린손자가 알아듣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을 당하셨는데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비밀을 털어놓겠소. 세상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한 뒤에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나의 아들을 길렀고 나의 아들은 오늘 또 그의 아들을 기른다. 그러나 나의 아들은 그가 과거에 굶었다고 오늘 나를 굶기니 손자에게는 제발 나를 굶기는 법을 가르치지 말아다오'

이것은 자손을 아끼는 늙으신 어버이가 고통스러워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속의 소리입니다. 살다보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인색함과 교만심·해꼬지하는 마음·개인적인 감정·간악한 마음·짐승같은 마음에 이끌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 없이 많습니다.

옛날 알렉산더대왕이 희랍을 통치할 때 그는 희랍의 국토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동서남북 가릴것 없이 다른 국가들을 침공하여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알렉산더대군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자욱한 모래가 끝없이 휘몰아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알렉산더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서쪽으로 공격해 가면 어디가 나오는가?"

"서쪽으로 간다해도 역시 사막입니다"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부하의 말을 듣자 전율을 느끼며 광활한 사막은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군대를 되돌려 동인도로 진격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여 수없이 많은 격렬한 전투를 치루며 마침내 인도 내륙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물살이 급한 갠지스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갠지스를 건너면 어떤 곳이 나오는가?"

"폐하! 광활한 삼림이옵니다"

알렉산더는 빽빽한 삼림을 바라보자 다시금 두려움이 생기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삼림을 가로 질러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인더스강쪽을 공격해 들어가면 어떤 곳이 나오는가?"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책 ③

효심의 본찰
용 주 사
사찰문화연구원 펴냄

사지(寺誌) 사찰 문화의 결정이요, 신행의 요람입니다.

세월의 무상함은 불교문화 유산이라 하여 비껴 가지 않습니다. 풍상에 스러져도 신심은 그대로이겠지만 옛사람들이 빚어놓은 신심의 결정인 사찰문화를 흔적조차 없이 잃어버린다면 민족문화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찰문화연구원'이 꾸준히 이루어온 사찰문화와 사지 연구의 결과로서 개별 사찰로는 처음으로 용주사 사지를 엮었습니다.

용주사지 창건 배경과 과정에서부터 주요인물, 문화유산에 대한 신앙적, 예술적 고찰, 용주사의 말사, 용주사의 옛기록에 이르기까지 용주사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변형판(18절)
248쪽
전면 컬러
(사진 168매 수록)
값 10,000원

*이제는 신도 교육과 포교도 '사지 발간' 등을 통해 한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책 ④

효를 통해 본 불교의 인간관
'효의 세상 정토의 세상'
사찰문화연구원 펴냄

'효' 튼튼한 사회, 건강한 인간 관계의 기둥입니다.

• 사찰문화연구원에서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적 깨달음(성불)과 사회적 깨달음(불국토 실현)의 실천행으로서의 '효사상'을 한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효, 한국 불교에 살아 숨쉬는 고승들과 재가 불자들의 효행, 효 윤리의 현대적 의의를 평이한 문체로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에게는 교양서로, 청소년 불교 지도자나 스님들께서는 교육자료로서 일독을 권합니다.

신국판
240쪽
전면 컬러
(사진 39매 수록)
값 7,000원

* 부록으로 용주사 소장 부모은중경 목판본을 영인하여 실었습니다.

산천 경계와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도 부처님의 참뜻은 하나더라.

현오스님과 함께 떠나는 미얀마 72일, 위빠사나 수행기

남방불교 수행 제일의 나라 미얀마.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그곳에서 철저한 계율과 경전에
의거한 수행방법을 공부하고
돌아온 현오스님이
한국불교에 띄우는 메시지.

■ 신국판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에 충실하자!
수행은 결코 승려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신심만 있으면 누구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 수 있다!

◎ 이 책의 지은이 현오스님은 '75년 오대산 월정사에 입산, 회찬 노사로부터 득도한 후, 제방 선원과 토굴 생활을 거쳐 '93년 미얀마의 마하시 수도원에서 위빠사나를 수행했다. 현재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토굴에서 정진중이시다.

· 펴낸곳: 다모아 기획·출판 사업부
· 주문처: 도서출판 논장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02) 332 - 8369